

## 기적을 통해 본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

이동춘 (대구대)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는 5세기에서 8세기 중반까지의 앵글로 색슨(Anglo-Saxon) 왕국의 역사를 내러티브 형식을 빌려 기록한 영국 최초의 역사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을 토대로 쓰인 일반 역사서와는 달리 비드의 교회사에는 주관적일뿐더러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삽입되어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준다. 독자들이 받는 이 같은 인상은 비드가 교회사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기적관련 에피소드들 때문이다. 오늘날 독자들에게 그의 작품에 삽입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은 『영국민의 교회사』가 역사서인지, 아니면 성인전(hagiography)인지 혼란을 가져다주기까지 한다. 심지어 비현실적일뿐더러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 기적들을 작품에 삽입시킴으로서 역사서와 성인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비드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날 독자들은 또한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와 관련하여 오늘날 독자들이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의문과 혼란은 비드의 작품을 편집한 플러머(Charles Plummer)를 비롯하여 콜그레이브(Bertram Colgrave)에 의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1968년 『영국민의 교회사』 옥스퍼드 판(Oxford Edition)을 마이노어스(R.A.B. Mynors)와 함께 편집한 콜그레이브는 서문에서 중세 최고의 역사가로 여겨지는 사람이 기적관련 이야기에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xxxv). 또 다른 글에서 그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비드의 교회사에는 거의 각 페이지마다 한두 가지의 기적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Bede” 201). 일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 학자들 역시 교회사에 삽입되어 있는 기적들이 영국 역사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역사서에 들어갈 자료를 선별하고 목적에 맞게 조각(彫琢)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자세를 견지한 비드가 역사가로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주관적이며 세련되게 보이지 않는 기적들을 교회사에 삽입한 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 들어 비드의 작품 속 기적들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관점을 피력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브라운(G. H. Brown)은 비드가 자신의 세계와 역사의 일부로서 기적들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교회사에 삽입되어 있는 기적들과 역사가인 비드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95).

실제로 비드가 사용하고 있는 기적의 내용, 그리고 기적 관련한 인물이나 문맥을 면밀히 살펴보면, 브라운의 말처럼 기적은 『영국민의 교회사』의 필수 요소 일뿐더러 이러한 요소를 사용한 비드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비드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임아(Imma)와 관련한 기적 이야기를 들 수 있다(제 4권, 22). 노섬브리아(Northumbria) 귀족인 임아라는 사람이 이민족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온 몸이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 쇠사슬이 몇 번에 걸쳐 저절로 풀리곤 했는데,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사제인 그의 형이 하늘에 미사를 올리는 순간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곤 했다는 기적에 가까

운 이야기를 비드는 그의 역사서에서 전한다. 비현실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만이 다루어져야하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비드의 역사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아와 관련한 기적을 언급하면서 비드는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입 다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이야기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a remarkable incident … should certainly not be passed over in silence, since the story may lead to the salvation of many)(207)라고 말한다. 비드는 역사가에 앞서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의무감을 지녔다. 자신이 언급하는 기적이 설령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이교도들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만 있다면, 마땅히 기적이 역사서에 언급되어야한다고 비드는 믿었다. 심지어 비드에게는 순수한 역사서를 쓰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영국민의 교회사』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후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것이 자신이 교회사를 쓴 의도라고 비드는 밝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는 교회의 성인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신봉한 지상의 군왕들의 삶과 태도를 일종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흥미와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적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가로서보다는 교육자로서 비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분석할 예정이다. 두 에피소드 모두 비드의 교회사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극적인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캐드먼의 찬가』(“Caedmon’s Hymn”)는 성직자와 관련한 일화로서 문학적인 요소는 물론 비드가 의도하는 기적의 의미와 효과가 매우 잘 드러나 있다. 두 번째, 에드윈(Edwin)이라는 노섬브리아의 국왕과 관련된 일화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극적이며 문학성이 높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에드윈이 노섬브리아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화에는 『캐드먼의 찬가』와는 달리 기적과 관련한 요소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비드가 교회사에서 기적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사용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비드가 전달하려는 종교적 메시지(의도)를 밝히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영국민의 교회사』에 언급되어 있는 기적의 내용과 전통, 그리고 기적에 대한 비드의 생각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 I. 비드에게 기적은 무엇인가?

유럽 초기부터 6세기 말엽까지 교회나 그리스도 신앙과 관련한 글에서 기적 관련 에피소드나 기적의 흔적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성인전이나 특정 성인들의 전기(biography)들이 흥미하기 몇 세기 이전부터 유럽 문학에서 기적들은 또한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문학적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Loomis 404). 뿐만 아니라, 복음서(Gospels)를 비롯하여 구약 및 신약 성서에 역시 다양한 종류의 기적 관련 에피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앞서 언급한 글들이 아니더라도 기적은 당시 독자들이 매우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문학 소재이기도 하였다. 신학자로서 그리스도교 역사서의 기틀을 제공한 유스비우스(Eusebius)를 비롯하여 그레고리(Gregory of Tours) 역시 기적의 요소나 기적 관련 에피소드를 자신들의 작품들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레고리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의 요소들을 언급하며 딜(Samuel Dill)은 그레고리의 작품들에 기적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레고리가 살던 시대를 오도하거나 불구로 묘사하고 있는 꼴이라고까지 말한다(395). 한마디로 그리스도교 관련한 유럽 초기 작품을 비롯하여 그레고리 작품에 이르기까지 기적이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워드(Benedicta Ward)의 말처럼, 기적은 단순하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일종의

부수물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세련된 능력을 지닌 일부 사람들의 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요소이기도 하다(70).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오늘날 독자들은 앞서 언급한 작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적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 19세기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 유럽 사람들에게 미신이나 기적은 특이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당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들처럼 삶 속 일상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적을 그들은 받아들였다. 그들의 주위에는 알 수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로 둘러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예를 들어, 온갖 숲속에는 정령과 신이 지배를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아울러 자연만물에는 조화와 질서가 존재하는데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이나 마법사 등이 자연에 변화를 주고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이나 기적을 유발시킨다고 그들은 또한 믿었던 것이다 (Colgrave 202).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기적은 그들 삶의 일부였으며, 그들의 문학이나 삶 속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기적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들에게 더욱 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역사가에게 객관적 사실이 아닌 기적의 요소나 에피소드는 마땅히 회피되어야 하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달하려는 당시 작가들에게 기적은 글을 쓰기 위한 필수 요소였던 셈이다.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인들이 단순히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보여주는 기적을 통하여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을 이들 작가들은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기적은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힘과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세속적인 힘과 권위를 제공해주었다. 무엇보다 기적은 이들 작가들이 이교도들로부터의 거부나 반항 없이 이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던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이들 작가들은 그리스도 문명 이전 이교도들에게 익숙한 기적이

나 자연의 놀라운 현상(wonder), 부적(talisman)이나 주문(charms)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종교를 접목시키려 하였다.

비드 역시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교도인 앵글로 색슨족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그들의 전통과 풍습, 그리고 사교체계를 최대한 이용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교도들의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던 기적이나 그 밖의 놀라운 자연 현상들을 그리스도의 믿음과 결합시킴으로써 비드는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시킨 유능한 교육자였던 셈이다. 비드는 그레고리의 말을 자신의 교회사에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들의 고집 센 마음에서 모든 것을 즉시 지워버리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단 번에 오르기 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하기 때문이다.

For undoubtedly it is impossible to efface everything at once from their obdurate hearts, because he who seeks to climb the highest peak ascends step by step and not by leaps. (57)

앵글로 색슨족을 계도하는데 있어서 비드는 이들이 예로부터 지니고 있던 전통이나 사교체계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전통에 그리스도 신앙을 접목, 융합시켜나가는 과정이 더딜뿐더러 고통스럽다는 사실 또한 비드는 잘 알고 있었다. 기적이나 자연현상은 물론이거니와 앵글로 색슨족의 오래된 물건까지도 교육에 필요하다면 비드는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비드가 교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치유(治癒) 기적을 일으키는 성인의 유품을 비롯하여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여타 물건들은 그리스도교 문명 이전부터 앵글로 색슨족이 즐겨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비드는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물건에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들 외에 당시 그들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기적이나 경이로운

현상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이들을 계도하는데 비드는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드의 교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적의 요소나 기적 관련 에피소드는 역사서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도 아닐 뿐더러 역사가로서 비드의 단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물론 아니다. 이는 기적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을 뿐더러 기적을 원했던 당시 앵글로 색슨족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비드의 치밀하면서도 정교한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앵글로 색슨족과 마찬가지로 비드 역시 역사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기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실체로서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기적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확신을 비드는 지니고 있었다. 이런 확신을 비드는 그레고리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기를, “기적이란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필요한데, 이는 마치 식물을 심은 후, 식물이 뿌리를 내려 안착할 때까지 우리가 물을 주는 것과 같다”(…miracles were necessary at the beginning of the church, just as when we put in a plant, we water it until we see that it has taken root)고 했다(Giles X. 261). 초기 교회가 대중들에게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기적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나 하느님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믿었다(Giles VII, 27).

특히, 아무리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느님의 종복(從僕)일지라도 마음속 겸손함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비드의 확신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 유독 영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주교를 포함한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윌프리드(Wilfrid)와 관련한 기적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써 캐빌(Paul Cavill)은 비드의 눈에 비친 윌프리드의 겸손치 못한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윌프리드의 자기중심적이며, 활동적이며, 거만한 성품은 기적의 출현과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비드가 보았을 것이라고 캐빌은 단정 짓고 있다(38-40). 윌프리드 외에도 본 논문에서 다룰 에드윈

(Edwin) 국왕 역시 비드가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는 노섬브리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훌륭한 인물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비드는 어떠한 기적관련 에피소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에드윈 역시 비드의 눈에는 기적이 함께할 정도로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뿐더러 겸손한 인물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드에게 기적이란 특정 인물의 됨됨이는 물론 인물과 하느님의 관계를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한 셈이다.

비드는 또한 기적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비드는 커쓰버트 성인(St. Cuthbert)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앓고 있던 혀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말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적을 언급하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실제 존재하며, 교회와 신앙인에게 기적의 중요성을 비드는 누누이 강조한다. 심지어 비드는 말을 타고 천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도 하는데(*Vita Cuthberti* II),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드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드는 간혹 이상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한다(Wormald 155). 그러나 역사가이며 종교인으로서 기적에 대한 비드의 입장과 태도는 앵글로 색슨족이 받아들였던 것 이상으로 확고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가 교회를 집필하는데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드가 듣고 경험한 모든 기적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선별 없이 모두 수용되어 『영국민의 교회사』의 자료로 사용된 것은 물론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드가 교회사의 본보기로서 모방하고 있는 유스비어스와 그레고리의 작품을 포함하여 중세 유럽의 종교 문학에 언급되고 있는 기적의 요소와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편이다. 그의 손에는 항상 그레고리의 『대화』(*Dialogues*)를 비롯하여 구전 혹은 글로써 내려오는 온갖 종류의 기적들이 들려져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비드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철저하게 분석한 뒤, 자신의 의도에 맞는 기적을 골라 교회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비드는 기적과 단순한 놀라운 이야기(wonder)를 먼저 구분하였다. 보편적이며 일반

적인 인간의 사고를 뛰어 넘는 특이한 점을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후자에는 전자와는 달리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종교적 의미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비드는 후자를 교회사의 자료에서 배제시켰다. 비드는 또한 기적 관련 에피소드를 교회사의 소재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how)라는 문제보다는 ‘무엇’(what)이라는 사실과 함께 ‘왜’(why)라는 이유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Ward 71). 다시 말해서, 기적의 내용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비드는 주력하였다. 결국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같은 내용을 지닌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종교적 의미내지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비드가 기적들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기적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비드의 태도에서 교육자로서 그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비드는 항상 자신이 가르칠 교육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적들을 선별하였다. 하나는 아무런 저항이나 반감 없이 앵글로 색슨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드는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기적들을 교회사의 소재로 선별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삶속에서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기적들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선별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캐드먼의 일화 역시 단순히 노래를 못하던 무지한 목동이 기적적으로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는 비드가 캐드먼의 일화를 교회사의 자료로서 선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캐드먼처럼 비슷한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말 못하는 병어리가 말을 한다거나 구부러진 혀나 펴지고 병을 앓던 혀가 치유되는 이야기는 성서를 비롯하여 여러 성인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비드의 교회사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 예를 들어, 치유의 기적들, 자연현상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기적들을 비롯하여 물체의 성상이 변화하는 기적들 모두 구약이나 신약 성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단순히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신약이나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성인전에서 접할 수 있는 기적들과 비드의 기적들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

다. 그러나 양측의 기적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비드는 자신이 알고 있던 기적들을 다시 한 번 단순히 교회사에서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드의 치유나 변화의 기적 관련 이야기에는 항상 기적을 경험하는 인간이 나오며, 인간을 통하여 실제로 기적을 일으킨 존재가 다름 아닌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비드는 확실히 해준다. 다시 말해서, 비드가 기적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인간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가 없는 인간의 행동이나 자연의 변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지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느님의 은총만이 인간의 능력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캐드먼의 일화는 보여주며, 논문의 서두에 언급한 임아 역시 기도와 미사만이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들 외에도, 커쓰버트(St. Cuthbert)의 일화 역시 비드가 기적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해준다. 커쓰버트는 비드가 평소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서 다른 누구보다 그와 관련한 많은 종류의 기적들을 비드는 교회사(제4권, 30, 31)를 비롯하여 『커쓰버트 전기』(*Vita Cuthberti*)에서 보여주고 있다.<sup>1)</sup> 루터코르트(Karl Lutterkort)의 분석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비드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쓰인 커쓰버트의 일기를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다시 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성인의 정신적 발전과정에서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커쓰버트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단순히 다시 반복하기 보다는 커쓰버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강조하며 기적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데 비드는 『커쓰버트의 전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비드는 기적이란 하느님의 은사(恩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지 『영국인의 교회사』에 들어있는 51개의 기적들 가운데 대다수를 제3권, 제4권, 제5권에 집중하고 있다(Rosenthal 330).<sup>2)</sup> 교회사의 후반부가 바로 그리스도교가 영국에

1) 커쓰버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비드는 자신이 그레고리가 묘사하고 있는 베네딕트처럼 이상적인 수도승이며 사제로 그려지기를 원했으며, 비드는 그를 설교자이며 교회 개혁자이며 행동 중에 목상하는 이상적인 수도자로 보았다. Thackers 참조.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영국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 II.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 속의 인류 역사:

### 『캐드먼의 찬가』와 에드윈의 일화

기적들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비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관련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사실들 사이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공간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서, 에피소드에 신학적, 도덕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내용이나 사건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대상에게 적합한지를 비드는 기적을 선별하는 최우선에 두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걸맞는 기적의 내용이 없을 경우, 비드는 직접 기존의 기적들을 자신의 방향에 맞추어 개작하기도 하였다. 이는 물론 기존의 골격과 내용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상태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가미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교육자로서 비드의 섬세하고도 철저한 태도는 기적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적을 개작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개작하는 과정에서 비드는 자신이 의도하는 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비드는 기존의 기적에 피교육자가 흥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내러티브의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썼다. 기적이란 일반 독자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이야기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서 피교육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마치 이야기의 반전(反轉)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의 운명의 전환 등이 없는 일반 내러티브와는 달리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기적은 일종의 ‘색깔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2) 로젠탈(J. T. Rosenthal)은 『영국민의 교회사』의 언급되고 있는 기적의 수를 51라고 주장하는 반면, 루터코르트는 그 수를 55개로 못 박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비평가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서 능동적인 기적이 아닌 비전(vision)과 같은 수동적인 기적을 기적의 범주에 넣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Rosenthal 329). 대표적인 예로서, 에드윈의 개종을 로젠탈은 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가 아닌가 싶다. 성서 속 『탕아의 이야기』(Prodigal Son)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듯이, 비드에게 기적은 단순한 이야기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드의 교육 목적을 적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피교육자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에피소드가 바로 『캐드먼의 찬가』가 아닌가 싶다. 영문학 최초의 영시라 불리는 『캐드먼의 찬가』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적들을 가운데 비드가 하나를 선별하여 이를 개작하게 된 이유를 추적 가능케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에피소드인 셈이다. 『캐드먼의 찬가』를 단순히 기적과 관련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는 성서를 비롯하여 성인전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민담이나 우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캐드먼의 찬가』와 유사한 형태나 모티브를 지닌 이야기를 모두 나열하자면 그 수가 상당하나, 그 가운데서 몇 개를 골라 비드의 에피소드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성인 휴(St. Hugh of Lincoln)의 장례식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던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금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라틴어로 노래를 짓기 시작했다고 호브든의 로저(Roger of Hoveden)는 전한다. 꿈속에서 한 성인의 방문을 받은 클레보(Clairvaux)의 수도사인 월터(Walter)가 성인으로부터 미사곡을 배우게 되었는데, 꿈에서 깨어나자 월터는 그 곡을 기억하고는 있었으나 자신이 배운 내용을 사용하거나 더 이상 배울 능력을 그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전한다. 이외에도 병어리 수도사인 윌리엄(William of Ford)이 성인의 기도 덕분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언어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 프랑수어가 아닌 저급 영어뿐이었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신학적 의미가 배제된 상태로 이들 이야기는 한 인간에게 나타난 놀라운 현상(wonder)만을 전달하고 있다. 캐드먼의 일화와 비슷한 대부분 이야기들의 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현상에 공통적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드는 기존의 에피소드들과는 달리 『캐드먼의 찬가』를 문학적으로 섬세하며, 유기적 구조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발전시키고 있다. 게다가 극적인 효과까지도 가미되어 『캐드먼의 찬가』는 비드의 기적 관련 에피소드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평가된다. 피교육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캐드먼의 찬가』를 단순히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준을 넘어 비드는 자신이 의도하는 교육적 목표, 즉 신학적, 도덕적 교훈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에피소드에 사용하고 있다. 비드 역시 앞서 언급한 여타 유사한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한 부분(혀)에 문제를 안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의 주체로 삼고 있다. 캐드먼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오늘날의 음치(音癡)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목동에 불과하다. 비드가 기적의 대상으로 캐드먼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인물을 설정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뜻과 은총을 온전하게 수용하며 이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바로 마음이 가난하며 삶이 소박한 캐드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하느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성서 속 사실을 비드는 에피소드를 통하여 구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도구로서 비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 그의 남다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드는 자신의 교육대상인 앵글로 색슨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매체인 노래를 『캐드먼의 찬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오울프』(Beowulf)를 비롯한 앵글로 색슨족의 구전문학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래는 이들 삶의 일부였을 뿐더러 이들이 사랑했던 매체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교도의 문화유산일지언정 비드는 그리스도 신앙을 효과적으로 앵글로 색슨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래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영국민의 교회사』에 언급되어 있듯이,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노래의 중요성을 비드는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비드에게 음악은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물론 타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익혀야 할 영역

인 셈이다(Hanning 88). 이런 점에서 노썸브리아의 목동인 캐드먼에게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에피소드 안의 모든 설정 하나 하나가 비드의 철저한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비드의 에피소드와 이와 유사한 여타 에피소드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드의 에피소드에는 비드가 전달하려는 도덕적, 신학적 의미가 확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드가 기적의 주체로서 무지한 목동을 택하고 있으며, 기적의 도구로서 노래를 사용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가 의도하는 교육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드의 에피소드에서 기적의 주체인 캐드먼과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하느님의 은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셈이다. 캐드먼을 소개하면서 비드는 “신의 은총”(the grace of God)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이상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 캐드먼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은사(恩賜)임을 강조하고 있다(215). 또한 캐드먼이 입은 하느님의 은사가 어느 정도인지 강조하기 위하여 비드는 캐드먼이 노래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선천적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캐드먼이 “어느 누구도 [노래하는 능력에서] 그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none could compare with him)고 비드는 말하며, 그 같은 능력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노래 기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말한다(21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캐드먼은 “결코 경박하고 무의미한 어떠한 시도 쓰지 않았으며 오직 성스러운 입에 잘 어울리는 믿음과 관련된 것만을 썼다”(Hence he could never compose any foolish or trivial poem but only those which were concerned with devotion and so were fitting for his devout tongue to utter)고 비드는 말하고 있다(215).

캐드먼의 노래가 육신의 외상을 치유하기보다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세속적인 시인이나 노래하는 사람과 캐드먼을 비교해 볼 때, 비드의 말에 따르면, 전자가 완벽할 수 없으며 캐드먼을 능가할 수 없는 이유는 전자에게는 신의

은총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지지 않고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캐드먼의 일화는 말해주고 있다. 더 나가 캐드먼의 일화는 인간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 역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추케 해준다(Rowley 233).

앵글로 색슨족이 즐겨 부르던 노래에 그리스도 믿음이 덧칠해짐으로서 노래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드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경시하고 천상의 삶에 집착”(…the minds of many were often inspired to despise the world and to long for the heavenly life)하게 만드는 신비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215).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래하는 캐드먼 역시 단순하고 무지한 일개 목동에서 하느님의 뜻과 믿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이며 그리스도교의 영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넘어서 캐드먼을 비드는 수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에피소드에서 그려내고 있다. 먼저 캐드먼이 꿈속에서 하느님이 전해주는 ‘천지창조’의 노래를 기억한 다음, 잠에서 깨어 동료 목동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은 비드가 소속된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의 학습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큰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내용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이를 매우 부드러운 곡조로 만들어 내는 캐드먼의 행위는 바로 세상 모든 사물을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읽히고 영혼의 양식으로 만드는 수도사들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Leclercq 17). 캐드먼이 노래하는 방식에는 노래가 단순히 오감을 만족시키는 매체가 아니라 그 효과가 영혼에까지 닿아야 하듯이, 인간이 읽히는 모든 내용 역시 단순히 육체적 수준을 넘어 영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비드의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단순히 육체적 혹은 현상의 변화만을 유발시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이란 『캐드먼의 찬가』에서 볼 수 있듯이 고귀한 목적, 즉 영혼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비드는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캐드먼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통하여 비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캐드먼처럼 순수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여기에 비드는 한 가지 조건을 더하고 있다. 아무리 세속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수도자일지라도, 앞서 윌프리트의 경우에서 간단히 언급했다시피,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드는 캐드먼 일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드에 의하면 “그(캐드먼)는 매우 신심이 돈독하며 겸손하게 수도원의 규율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He was a most religious man, humbly submitting himself to the discipline of the Rule) (이것이) 가능하였다(271). 마지막 순간까지 캐드먼에게 하느님의 은총에서 비롯되는 기적은 계속된다. 자신이 죽을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캐드먼의 능력은 그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되는 성사(종부)를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이란 믿음과 겸손함, 그리고, 임아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기도와 성사(聖事) 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비드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과 조용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었고 조용한 죽음에 의해 이승을 떠나 하느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창조주를 찬미하기 위하여 많은 구원의 노래를 만든 그의 혀는 성호경을 긋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위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말을 하였다. 이미 들었다시피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us it came about that, as he had served the Lord with a simple and pure mind and with quiet devotion, so he departed into His presence and left the world by a quiet death; and his tongue which had uttered so many good words in praise of the Creator also uttered its last words in His praise, as he signed himself with the sign of the cross and commended his spirit into God's hands; and from what has been said, it would seem that he had foreknowledge of his death. (218)

『캐드먼의 찬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적이란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비드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며, 기적은 또한 신심이 돈독하며 겸손한 하느님의 종에게 나타나는 은사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캐드먼의 찬가』에서 기적은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천상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비드는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 짓고 있다.

특히 에드윈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힘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을 『캐드먼의 찬가』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에드윈의 에피소드는 비드의 조국, 노섬브리아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들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드윈의 에피소드는 교회사의 언급되어 있는 여타 기적 관련 에피소드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극적인 이야기 요소들이 포함하고 있다. 노섬브리아에서 추방당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에드윈이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비롯하여 에드윈의 자문관 가운데 한 사람이 일례로서 전해주는 참새 관련 이야기는 교회사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극적이며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에드윈과 노섬브리아 백성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교황 보니파스(Pope Boniface)가 보낸 편지들이 에드윈의 에피소드에 더해져 있어 『영국민의 교회사』에 들어있는 어떠한 단일 인물이나 기적관련 내용보다 그 분량이 방대한 편이다. 특히, 로울리의 표현을 빌자면, 교회사에 언급되어 있는 에드윈은 “천부적인 총명함을 보이는 군주”(a man of natural sagacity)로서 그의 에피소드에는 종교적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237). 뿐만 아니라, 에드윈은 노섬브리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면서 노섬브리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윈의 에피소드 어디에서도 기적을 찾아볼 수 없다. 루터코르트의 경우, 에드윈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라고 주장한다(99).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꿈속에 나타나는 비전(vision)이나 에드윈의 개종은 루터코르트의 주장처럼 이른바 ‘수동적인’ 기

적에 해당할지언정, 『캐드먼의 찬가』나 여타 다른 기적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

노썸브리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더불어 노썸브리아를 하느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로 여겼던 비드가 에드윈의 에피소드에 기적을 가미하지 않는 이유는 에피소드 안에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자신의 조국인 노썸브리아를 최초로 그리스도 국가로 만든 에드윈의 능력과 믿음을 비드는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드윈의 신앙적 발전과정과 개종에 비드는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비드는 왕으로서 에드윈의 타고난 자질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현명하며 사려 깊은 본성을 강조하곤 한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혼자서 즉흥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신중히 고려하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비드는 묘사하기를 “[에드윈]은 한 번에 몇 시간씩 혼자서 앉아 있곤 하였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따라야만 하는지 혼자서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used to sit alone for hours at a time, earnestly debating within himself what he ought to do and what religion he should follow)고 한다(94). 자객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처가 치유된 점이나, 추방당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게 낫선 남성이 그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던 일, 그리고 참새 일화들 모두 에드윈을 그리스도교로 이끌기 위한 하느님의 치유요 계시인 셈이다.

무엇보다 에드윈의 자문관이 전하는 참새 일화는 한 폭의 그림처럼 매우 아름답다우며 인상적이다. 인간을 한 마리 새에 비유하며 자문관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화를 통하여 자문관은 새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며, 인간의 존재는 하느님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안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참새의 일화를 통하여 비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에드윈을 포함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느님의 비전과 계시를 경험한 이후에도 에드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변화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더욱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고형의 인물’로서 에드윈을 비드는 교회사에 그리고 있다. 한마디로 에드윈을 하느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비드는 보고 있다. 심지어 에드윈은 하느님의 계시에 침묵하는가 하면 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제8권, 10). 그런 가하면 에드윈은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달기도 한다. 간혹 자신이 요구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약속마저도 에드윈은 거부한다.

비드는 자신의 조국인 노샘브리아를 최초로 통일했으며 그리스도 국가로 이끈 에드윈을 하느님께 불충하거나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에드윈과 노샘브리아 백성들의 그리스도 개종을 어느 사건보다 더욱 더 극적이며 의미있게 비드는 묘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드는 의도적으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마다 비드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인간 만사에 하느님의 계시와 뜻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다만 비드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상의 왕으로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나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미온적이며 주저하는 에드윈의 태도이다. 로울리의 지적처럼, 국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에드윈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에드윈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하느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비드는 철저하게 에드윈에게 적용하고 있다. 기적이란 “말을 타고 있는 천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느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에드윈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에드윈과 기적과의 관계는 에드윈이 이론 통일의 기틀 아래 하느님의 뜻을 아무런 주저 없이 받아들인 오스왈드(Oswald)의 예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에드윈과 오스왈드는 사뭇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자는 분석하고 사고하는 유형이라면, 후자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유형이다. 에드윈과는 달리 오스왈드에게 인간으로서

자유 의지나 개인적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는 오직 하느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이를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에서 오스왈드는 신앙과 기도, 즉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 커쓰버트 성인을 이상적인 종교인의 역할모델로서 그리고 있다면, 비드는 오스왈드를 이상적인 국왕의 본보기로서 교회사에서 묘사하고 있다. 캐드먼의 일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비드에게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 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오스왈드 역시 국왕으로서 하느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나 여타 선지자(先知者)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느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내려주었듯이,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 오스왈드에게 하느님은 기적의 은총을 내려준다.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오스왈드의 신성(神聖)한 인품 외에 오스왈드에게 내려지는 기적의 은총은 하느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 복종과 순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에드윈과 오스왈드의 큰 차이이며, 이러한 덕목이 부족한 에드윈에게 기적의 은총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비드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비드가 오스왈드의 행적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드는 오스왈드의 육신의 각 부분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고, 어디에 묻히게 되었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에드윈의 에피소드 어디에서도 이처럼 상세한 묘사를 찾아볼 수 없다. 『영국민의 교회사』를 편집한 콜그레이브와 마이노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에드윈이 전투에서 패한 뒤, 그의 머리가 성 베드로 교회에 안치되었다는 사실 외에 더 이상 에드윈의 머리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204). 이는 오스왈드의 신체 부분들과 그의 유품들에 대한 비드의 섬세하면서도 애정 어린 묘사와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외에도 비드는 에드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는 덕목 외에 기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오스왈드만의 덕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드는 또한 군왕으로서 오스왈드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끈 아이던(Aidan)의 관계를 통하여 지상의 평화와 천상의 평화가 서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위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며, 아래로는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자비와 겸손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즉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만하고 배가 부른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점을 비드는 캐드먼의 일화에서처럼 오스왈드의 일화에서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아이단과 세속적 지도자인 오스왈드 사이의 일치와 화합을 통하여 비드는 궁극적으로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연결 짓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로가 별개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드는 말해주고 있다. 오스왈드의 신성함을 말해주는 기적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죽은 장소의 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치유의 기적을 비롯하여 그의 육신이 썩지 않는 기적, 그리고 빛을 발하는 오스왈드의 유골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는 물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비드는 말한다. 비드에게 기적은 또한 지상과 천상을 연결시키며, 한 지역의 과거 이야기를 천상의 영원한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드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불과하며 노썸브리아라는 특정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드는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선물인 기적을 통하여 비드는 과거의 역사를 영원하며 항상 현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 짓고 있다(Sahlins 144). 비드에게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될 그 어떤 것이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노썸브리아의 역사는 단순히 한 특정 지역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하고 갈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대 해석은 오스왈드의 기적뿐만 아니라 에드윈, 그리고 캐드먼의 일화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비록 에드윈의 미온적인 태도와 자세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지언정, 그의 심적 변화와 그리스도교로의 개종 모두 하느님의 계시와 의지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스왈드, 에드윈, 그리고 캐드먼의 일화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

지와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III. 주관적이며 현실적인 교육자로서 비드

비드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역사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내용을 각색하고 재해석하는 교육자이며 문학가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영국민의 교회사』에는 비드의 주관적인 생각은 물론 그의 개인적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오스왈드를 비롯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드는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냉랭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들을 백안시(白眼視)하는 느낌마저 든다. 일례로 비드는 교회사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과 야만인에 대하여 자신만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심지어 이들에 대한 살육과 복수를 하느님의 뜻으로 비드는 정당화시키며, 살육이나 만행 역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드는 이를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제2권 1, 6과 제3권 1).

그런가 하면, 자신의 조국인 노섬브리아와 노섬브리아의 백성에 대해서 비드는 역사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적인 애착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썩커(Alan Thacker)의 지적대로, 『영국민의 교회사』는 전체적으로 영국민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나, 기록의 중심에는 노섬브리아와 노섬브리아의 성왕(聖王)과 성인(聖人)들이 놓여있다(146). 에드윈이나 오스왈드, 그리고 캐드먼 역시 노섬브리아의 인물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드가 이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에그프리스(Egfrith)가 픽트족에게 패배를 당한 것을 두고 비드는 이를 재앙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외에도, 노섬브리아가 처음처럼 두 개의 국가, 즉 버니시아(Bernicia)와 테이라(Deira)로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물론 근심까지도 비드는 피력한다.

비드는 633년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는 상황을 재난에 버금가는 것으로 묘사하며 그 결과는 사악한 왕들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노섬브리아의 정치적 상황 외에 비드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노섬브리아 일부 수도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비드의 조국, 노섬브리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애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스왈드, 에드윈 그리고 캐드먼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비드는 노섬브리아를 하느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섬브리아와 관련한 모든 역사적 기록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하신 영원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비드는 보고 있다.

주관적이며 다소 편협한 느낌을 주는 비드의 기록 스타일 때문에 역사적 기록으로서 『영국민의 교회사』를 접하는 오늘날 독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소속된 수도원을 평생 벗어나본 적이 없는 비드가 오직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단순히 역사서의 가치를 넘어 교회사가 앵글로 색슨족은 물론 후세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교재로 여겨져도 무방할 듯싶다. 비드에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넘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를 종교적, 신학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작가들에 의해 기록된 많은 전기나 종교적 내용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적 관련 에피소드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적들 외에도 구체적인 예로서 커쓰버트 성인의 전기를 들 수 있다. 비드는 익명의 저자가 쓴 커쓰버트의 전기를 성인의 신앙적 발전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적을 가미함으로써 커쓰버트의 삶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였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비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는 역사가를 넘어 스스로 공부하고 남을 가르치는 교육자라 말할 수 있다.

교육자로서 비드는 또한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였다. 비드는 천상의 종교적이며 정신적인 것에만 그의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의 삶의 여정이 말해주듯이, 수도자이며 성직자로서 자신이 하느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비드는 조금도 부정할 적이 없었다. 임종하는 자리에서 비드는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수도자이며 교육자였다(제 5권, 25). 그러나 『영국민의 교회사』를 집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노섬브리아의 국왕인 세울울프(Ceolwulf)에게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 때문에 비드는 과거 이상적인 군왕의 본모기를 보여준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교회사에 소개하고 있다. 이는 수도원의 설립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권력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세속의 권력을 쫓지는 않았으나 이것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현실주의자적인 냄새가 비드의 교회사에서 다분히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기적을 바라보는 비드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워몰드(C. P. Wormald)의 말처럼 비드는 이상주의자에 가깝다(232-3). 그가 직, 간접적으로 접한 모든 기적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로 비드의 눈에는 비춰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비드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 외에 비드는 『영국민의 교회사』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앵글로 색슨족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넘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역사서보다는 모세처럼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느님의 세계로 이끌려는 비드의 의도는 『영국민의 교회사』의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모세오경(Pentateuch)을 연상시키는 다섯 권의 구조로 비드의 교회사는 이루어져 있으며, 비드는 교회사를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손일지라도, 캐드먼의 일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손은 단순히 하느님의 섭리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명감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드는 영국민을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성서 속 사막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포함되어 있는 성인과 성왕들 모두 성서 속 선지자들처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영국민을 하느님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비드는 가졌다. 모세오

경을 연상시키는 교회사의 구조와 모세오경의 내용과 교회사의 내용의 일치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비드 자신에게 성서를 기록하는 이상의 자부심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국민의 교회사』의 내용이나 관점을 두고 비드를 현실주의자나 이상주의자, 어느 한 쪽으로 정확하게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신학자로서 역사가와 문학가의 자질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비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글에 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견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가로서 지엽적이며 편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고자 했던 비드의 태도와 역할만은 『영국민의 교회사』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영국민의 교회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드 자신이 직접 기록한 작품들이 바이킹 족의 침입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국에서 즐겨 읽혔다는 사실과 더불어 신학자 알퀸(Alcuin)의 편지가 말해주듯이, 교육자로서 당시 비드의 역할과 그 영향이 후세 신학자들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해준다(Allan 39).

주제어: 『영국민의 교회사』, 기적, 『캐드먼의 찬가』, 에드윈, 오스왈드

### 인용 문헌

Allan, Verity. "Bede: Educating the Educators of Barbarians." *Quaestio: selected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Colloquium in Anglo-Saxon, Norse, and Celtic* 3 (2002): 28-44.

Bede. *Vita Sancti Cuthberti Prosaica* 3, 14. Ed., and trans. B. Colgrave. *Two*

- Lives of Saint Cuthbert*. Cambridge: Cambridge UP, 1940.
- .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Ed. Judith McClure and Roger Collins. Oxford: Oxford UP, 1999.
- Berlin, Gail Ivy. "Bede's Miracle Stories: Notions of Evidence and Authority in Old English History." *Neophilologus* 74 (1990): 434-43.
- Brown, G. H. "Old English Verse as a Medium for Christian Theology." *Modes of Interpretation of Old English Poetry, Essays in Honor of Stanley B. Greenfield*. Ed. R. Brown et al. Toronto, Buffalo, London: U of Toronto P, 1986. 15-28.
- Cavill, P. "Signs and Wonders and the Venerable Bede." *Evangelical Quarterly* 60 (1988): 31-42.
- Coates, Simon. "Bede—The Miraculous and Episcopal Authority in Early Anglo-Saxon England." *Downside Review: A Quarterly of Catholic Thought* 113 (1995): 219-32.
- Colgrave, Bertram. "Bede's Miracle Stories." *Bede: His Life, Times and Writings*. Ed. A. Hamilton Thompson. Oxford: Oxford UP, 1969. 201-29.
- Colgrave, Bertram, and R. A. Mynors, eds. *Bede's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Oxford: Clarendon, 1969.
- Dill, Samuel. *Roman Society in Gaul in the Merovingian Age*. London: Macmillan and Co., 1926.
- Giles, Saint. *The Book of Miracles of Saint Giles*. Ed. P. Guillaume. Orleans: Paradigme, 2007.
- Hanning, Robert. *The Vision of History in Early England*. New York: Columbia UP, 1966.
- Leclercq, J. *The Love of Learning and the Desire for God*. New York: Fordham UP, 1982.
- Loomis, Grant C. "The Miracle Traditions of the Venerable Bede." *Speculum*:

- A Journal of Medieval Studies* 21 (1946): 404-18.
- Lutterkort, Karl. "Beda Hagiographicus: Meaning and Function of Miracle Stories in the *Vite Cuthberti* and the *Historia Ecclesiastica*." *Beda Venerabilis: Historian, Monk and Northumbrian*. Ed. L. A. J. R. Houwen and A. A. MacDonald. Netherlands: Forsten, Groningen. 1996. 81-106.
- Roger of Hoveden. *The Annals of Roger de Hoveden*. Ed. W. Stubbs. London: H. G. Bohn, 1871.
- Rosenthal, J. T. "Bede's Use of Miracle Stories in the *Historia Ecclesiastica*." *Traditio* 31 (1975): 328-35.
- Rowley, Sharon M. "Reassessing Exegetical Interpretations of Bede's *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 *Literature & The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n, Theory, and Culture* 17 (2003): 227-43.
- Scholz, Katalin Halacsy. "Miracle-Working Poetry, Poetry Worth a Miracle? The Caedmon Story Yet Again." *AnaChronisT* (2002): 1-8.
- Sahlins, Marshall. *Islands of History*. Chicago: Chicago UP, 1985.
- Thacker, A. T. "Bede's Ideal of Reform." *Ideal and Reality in Frankish and Anglo-Saxon Society*. Ed. Patrick Wormald. Oxford: Clarendon, 1983. 130-53.
- Ward, Benedicta, S.L.G. "Miracle and History: A Reconsideration of the Miracle Stories Used by Bede." *Famulus Christi: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Thirteenth Centenary of the Birth of the Venerable Bede*. Ed. Gerald Bonner. London: Oxford UP, 1976. 70-6.
- Wormald, P. "Bede and Benedict Biscop." *Famulus Christi: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Thirteenth Centenary of the Birth of the Venerable Bede*. Ed. G. Bonner. London: Society for Promotion of Christian knowledge, 1976. 141-69.

## Bede's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 in Terms of Miracle

Abstract

Dongchoon Lee

At first sight, the miracle stories are hardly compatible with the scholarly approach to history which Bede displays in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 For Bede, however, the meaning of miracles remains crucial. Bede believed that miracles were necessary in the early days of the church, and he declares that the cessation of miracles is largely due to man's sin. Above all, Bede's inclusion of miracle stories provides the readers with the key to understanding his intention of edifying his posterity. For Bede, miracles are similar to illustrative anecdotes with which preachers brighten their sermons. In addition, miracles provide unequivocal evidence of God's active role in human history. Miracles also confirm the status of the English as a chosen people, whose conversion to Christianity earns them sovereignty of the island of Britain. In a broader sense, miracles in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 connect the specific history of England to the universal history of the Roman Church and Christian eternity.

With Caedmon's miracle as well as with Oswald's kingship and relics, Bede presents positive models for the function of a miracle and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in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 Bede emphasizes the role of inspiration in his account of Caedmon in such a way as to mark the inadequacy of human study unaided by grace. Bede's focus on the gift of God calls attention to the ultimate inadequacy of the human pursuit of knowledge and salvation without grace. While Edwin's successor, Oswald,

grounds his own success in his Christianity, Edwin does not. While all the pieces of Oswald, including even shards of the cross he erected or dirt from the place he died, manifest Oswald's sanctity, the fragments of Edwin do not. While miracles prove that Oswald's death at the hands of pagans was a martyrdom, no miracles attest to Edwin's sanctity. Edwin's repeated hesitation in his acceptance of Christianity and the absence of miracles can be construed within the terms of Bede's paradigm as a sign of his ultimate lack of grace. Edwin's delayed conversion can be understood as a deferral of the grace of God.

**Key Words**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ish People*, Miracle, "Caedmon's Hymn," Edwin, Oswald

논문 투고 일자 : 2010. 6. 15.

논문 수정 일자 : 2010. 7. 27.

게재 확정 일자 : 2010. 8. 2.